

## 農政輿論調查

# 農民들의 一般的特性에 대한 交叉分析結果

李 東 奎\*

### I. 머리말

#### II. 調查內容 및 分析結果

1. 調査와 分析의 方法
2. 一般的 特性間의 關聯性

### I. 머리말

이 調査는 經濟全般의 轉換期를 맞이하여 農業 역시 構造的 再編成이 要請되는 時點에서 本研究院 固有業務의 一環으로 農民의 基本的 慾求와 價值觀을 把握, 農政의 基礎資料로 提供하기 위해 遂行하였다.

調査內容의 一部는 本誌의 前號에 農政의 社會觀과 教育觀을 分離 揭載하였으며 本稿에서는 一般的 特性間의 相關關係를 瞰明하려 한다.

따라서 標本選定方法, 調査期間, 調査方法, 分析方法, 調査對象者の 一般的 特性 等은 前號 와 同一하므로 前號의 參照를 바라며 省略한다.

### II. 調査內容 및 分析結果

#### 1. 調査와 分析의 方法

이번 分析에서는 1967년 이래 持續되어 온 農村人力의 絶對的 減少現象이 가져 온 農村內部의

質的 變化 現象을 一般的 特性間의 交叉分析을 通해서 찾아 내려 하였다.

調查項目에 包含된 應答者의 일반적 特性은 ① 性別 ② 年齡 ③ 學歷 ④ 居居住地 ⑤ 家族數 ⑥ 耕地面積 ⑦ 年間所得 ⑧ 主收入源 ⑨ 農外所得 等인 바 이중 ① 性別을 除外하고 順序대로 他特性과 交叉시켜 分析하였다.

#### 2. 一般的 特性間의 聯關係

##### 가. 年齡과의 關係

###### 1) 年齡과 學歷

20代는 中卒과 高卒이 거의 비슷한 37.5% 와 38.9%로 高卒이 약간 많았다. 그러나 30代에서는 逆轉되어 中卒 42.9% 高卒 40.4%로 中卒이 약간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年齡이 많을수록 더욱 深化되어 40代는 中卒以下가 60.5%이고 50代 以上은 79.5%에 달했다.

즉 年齡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고 年齡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40여년의 教育環境의 變遷과 國民 전체의 教育水準 향상 추세로 미루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따라서 國卒학력총도 50代 以上에서는 36.3%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長.

表 1 年齡別學歷 ( ) 안은 %

	국졸	중졸	고졸	대졸	계
29세 이하	14 (19.4)	27 (37.5)	28 (38.9)	3 (4.2)	72 (100.0)
30~39세	24 (11.8)	87 (42.9)	82 (40.4)	10 (4.9)	203 (100.0)
40~49세	56 (21.0)	105 (39.5)	84 (31.6)	21 (7.9)	266 (100.0)
50세 이상	16 (36.3)	19 (43.2)	8 (18.2)	1 (2.3)	44 (100.0)
계	110 (18.8)	238 (40.7)	202 (34.5)	35 (6.0)	585 (100.0)

를 차지하고 40代의 21%로減少, 30代에서는 다시 11.8%로激減했다. 그러나 都市轉出與件이 가장有利한 20代는 國卒의 比率이 19.4%로急增했다.

반대로 大卒학력총은 50代 이상 2.3%에서, 40代 7.8%로急激이 늘어나다가, 30代는 4.9%로줄어들고, 20代에서는 4.2%로더욱 줄고 있어農村人口의 絶對的減少가 農民의 量的減少 뿐만아니라 質的低下현상을 가져왔으며 加速化시키고 있다는 巷說을 立證하고 있다(表 1)。

한편 中卒이나 高卒학력총 역시 大卒처럼 國民全體의 趨勢와는 反對로 30代보다 20代의 比率이 줄고 있어 農村勞動力 低質化 現象의 深刻性을 뒷바침하고 있다.

## 2) 年齡과 居住地

山間地帶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比例하여 構成比가 줄었다. 反面 평

表 2 年齡別 居住地 ( ) 안은 %

	산간지대	충간지대	평야지대	기타(근교)계	
29세 이하	23 (32.0)	38 (52.8)	6 (8.3)	5 (6.9)	72 (100.0)
30~39세	56 (27.7)	109 (54.0)	29 (14.4)	8 (3.9)	202 (100.0)
40~49세	71 (26.7)	143 (53.8)	44 (16.5)	8 (3.0)	266 (100.0)
50세 이상	11 (25.0)	20 (45.5)	9 (20.4)	4 (9.1)	44 (100.0)
계	161 (27.5)	310 (53.1)	88 (15.1)	25 (4.3)	584 (100.0)

야지대는 20代의 8.3%, 30代의 14.4%, 40代의 16.5%, 50代이상의 20.4%가居住하고 있어 山間地帶의 青少年層 離脫率이 가장 낮고 平野地帶의 離脫率이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表2)。

## 3) 年齡과 家族數

世代別 最頻値를 보면 20代는 5~6人이 가장 많고 다음이 3~4人이며, 30代는 5~6人, 7~8人의 順으로 20代보다 家口員數가 많았으며 40代는 더욱 많아 7~8人, 5~6人의 順이어서 年齡이 많을 수록 家口員의 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父母의 生存 可能性이 적고 子女의 離農可能性이 큰 50代는 다소 줄어 7~8人과 5~6人이 같은 比率이었다.

核家族의 典型인 3~4人家口의 경우 20代의 29.2%, 30代의 12.9%, 40代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農家의 急速한 核家族化 傾向을 들어내보이고 있으나 大家族의 代表格인 7~8人家口에 서는 20代의 20.8%, 30代의 27.7%, 40代의 45.5%를 占하고 있어 아직도 大家形態의 比率이 높게 나타났다(表 3)。

表 3 年齡別家族數 ( ) 안은 %

	1~2	3~4	5~6	7~8	9인 이상	계
29세 이하	3 (4.2)	21 (29.2)	29 (40.3)	15 (20.8)	4 (5.5)	72 (100.0)
30~39세	—	26 (12.9)	104 (51.5)	56 (27.7)	16 (7.9)	202 (100.0)
40~49세	—	9 (3.4)	89 (33.5)	121 (45.5)	47 (17.7)	266 (100.0)
50세 이상	—	3 (6.8)	18 (40.9)	18 (40.9)	5 (11.4)	44 (100.0)
계	3 (0.5)	59 (10.1)	240 (41.1)	210 (36.0)	72 (12.3)	584 (100.0)

## 4) 年齡과 耕地面積

年齡階層별로 1ha~3ha의 耕地所有 構成比를 보면 20代는 28.1%, 30代는 36.5%, 40代는 39.7%, 50代는 52.3%를 나타내어 應答者の 年

表 4 年齢別耕地面積

( ) 안은 %

	경종의	0.5ha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이상	계
29세 이하	1 (1.4)	12 (16.9)	34 (47.9)	14 (19.7)	3 (4.2)	3 (4.2)	4 (5.7)	71 (100.0)
30~39세	2 (1.0)	45 (22.5)	75 (37.5)	53 (26.5)	15 (7.5)	5 (2.5)	5 (2.5)	200 (100.0)
40~49세	2 (0.8)	47 (17.8)	105 (39.8)	60 (22.7)	28 (10.6)	17 (6.4)	5 (1.9)	264 (100.0)
50세 이상	2 (4.5)	7 (15.9)	12 (27.3)	12 (27.3)	9 (20.5)	2 (4.5)	—	44 (100.0)
계	7 (1.2)	111 (19.2)	226 (39.0)	139 (24.0)	55 (9.5)	27 (4.7)	14 (2.4)	579 (100.0)

表 5 年齢別所得額

( ) 안은 %

	50만원이하	50~70만원	70~100	100~130	130~160	160~190	190~220	220만원이상	계
29세 이하	8 (11.1)	8 (11.1)	14 (19.5)	13 (18.1)	6 (8.3)	11 (15.3)	5 (6.9)	7 (9.7)	72 (100.0)
30~39세	14 (6.9)	21 (10.4)	43 (21.3)	31 (15.4)	40 (19.8)	17 (8.4)	18 (8.9)	18 (8.9)	202 (100.0)
40~49세	12 (4.5)	32 (12.1)	42 (15.9)	44 (16.7)	35 (13.3)	40 (15.1)	34 (12.9)	25 (9.5)	264 (100.0)
50세 이상	4 (9.1)	1 (2.3)	8 (18.2)	7 (15.9)	6 (13.6)	4 (9.1)	6 (13.6)	8 (18.2)	44 (100.0)
계	38 (6.5)	62 (10.7)	107 (18.4)	95 (16.3)	87 (14.9)	72 (12.4)	63 (10.8)	58 (10.0)	582 (100.0)

齡과 耕地面積과는 매우 密接하게 比例하고 있다.

다만 0.5ha 미만 농가 중에서는 30代가 가장 많은 比率인 30代中의 22.5%를 보여 30代의 離農者中에는 中農以上이 相對的으로 많음을 示唆하고 있다(表 4)。

##### 5) 年齢과 農家所得

70萬원~130萬원, 130萬원~190萬원의 所得階層에서는 年齡階層 差異를 나타내지 않고 고른 分布를 보였다.

그러나 70萬원 이하의 계층은 20代의 22.2%, 30代의 17.4%, 40代의 16.7%, 50代이상의 11.4%를 차지해서 零細所得과 應答者の 年齡이 逆比例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190萬원이상의 階層은 반대로 年齡과 正比例하여 20代의 16.7%, 30代의 17.8%, 40代의 22.3%, 50代에서는 31.8%를 차지하였다(表 5)。

##### 6) 年齡과 主所得源

主所得源과의 관계는 作目에 따라서 매우 밀접한 函數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全體 應答者の 58.1%가 穀類를 主所得源으로 하고 있었는데 年齡이 낮을수록 그 比率도 낮아 20代의 43.0%, 30代의 55.4%는 평균치 이하였고 40代와 50代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각각 63.2%와 63.6%를 占했다.

즉 젊을수록 穀類 以外에서 主所得을 얻는 進取的 傾向을 보였다.

果樹에서 主所得을 얻는 경우는 年齡과 상관 없이 4~5% 였으나 40代가 약간 많은 편이었다.

年齡과 主所得源과의 관계가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菜蔬와 特用作物로서 20代 農家の 27.8%, 30代의 20.3%, 40代의 12.4%가 이에 依存해서 生活하고 있었으며 50代는 2.3%에 불과했다.

表 6 年齡別主所得源 ( )안은 %

	곡류	파수	채소	특작	축산	양잠	농의소득	계
29세 이하	31 (43.0)	3 (4.2)	20 (27.8)	13 (18.1)	1 (1.4)	4 (5.5)	72 (100.0)	
30~39세	112 (55.4)	9 (4.5)	41 (20.3)	18 (8.9)	2 (1.0)	20 (9.9)	202 (100.0)	
40~49세	168 (63.2)	15 (5.6)	33 (12.4)	32 (12.0)	2 (0.8)	16 (6.0)	266 (100.0)	
50세 이상	28 (63.6)	2 (4.5)	1 (2.3)	5 (11.4)	1 (2.3)	7 (15.9)	44 (100.0)	
계	339 (58.1)	29 (5.0)	95 (16.3)	68 (11.6)	6 (1.0)	47 (8.0)	584 (100.0)	

表 8 學力別居住地 ( )안은 %

	산간	중간	평야	기타	계
국 졸	37 (33.9)	60 (55.0)	9 (8.3)	3 (2.8)	109 (100.0)
중 졸	75 (31.5)	120 (50.4)	36 (15.1)	7 (3.0)	238 (100.0)
고 졸	43 (21.4)	107 (53.2)	37 (18.4)	14 (7.0)	201 (100.0)
대 졸	6 (17.1)	22 (62.9)	6 (17.1)	1 (2.9)	35 (100.0)
계	161 (27.6)	309 (53.0)	88 (15.1)	25 (4.3)	583 (100.0)

表 7 年齡別農外所得額 ( )안은 %

	없다	20만원 이하	2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 이상	계
29세 이하	17 (23.9)	23 (32.4)	20 (28.2)	9 (12.7)	2 (2.8)	—	71 (100.0)
30~39세	47 (23.6)	67 (33.7)	50 (25.1)	25 (12.6)	8 (4.0)	2 (1.0)	199 (100.0)
40~49세	53 (20.5)	70 (27.0)	76 (29.3)	47 (18.2)	9 (3.5)	4 (1.5)	259 (100.0)
50세 이상	10 (23.8)	6 (14.3)	12 (28.6)	9 (21.4)	2 (4.8)	3 (7.1)	42 (100.0)
계	127 (22.2)	166 (29.1)	158 (27.7)	90 (15.7)	21 (3.7)	9 (1.6)	571 (100.0)

한편 畜產爲主의 영농종사자는 30代이상은 比率上 큰 차이가 없으나 유독 20代가 他年齡層의 근 2배에 달하는 18.1% (同一 年齡階層中)였다 (表 6).

### 7) 年齡과 農外所得

農外所得이 전혀 없는 경우는 年齡階層에 관계 없이 모두 20%를 약간 넘고 있었으나 生活에 크게 寄與하는 額數인 50萬원 以上의 農外所得이 있는 應答者の 年齡階層別 構成比는 年齡과 比例하였다.

20代의 15.2%, 30代의 17.6%, 40代의 23.2%, 50代의 33.3%가 50萬원 이상의 農外所得이 있다고 應答했다 (表 7).

### 나. 學歷과의 關係

#### 1) 學歷과 居住地

山間地帶의 경우 國卒의 33.9%, 中卒의 31.5

%, 高卒의 21.4% 大卒의 17.1%가 居住하고 있어 學歷이 높을수록 構成比는 낮아졌다. 平野地帶는 高卒까지 學歷과 비례하여 늘어나다가 大卒은 약간 줄었다. 그 대신 中間地帶는 大卒의 비율이 월등이 높은 이외에 다른 學歷層은 고른 分布를 보였다 (表 8).

#### 2) 學歷과 耕地面積

경지면적은 學歷이 높을수록 많아져서 1.5ha 이상 所有者의 學歷別構成比는 國卒이 12.9%, 中卒이 14.4%, 高卒이 18.5%, 大卒이 33.3% 였다.

그러나 主穀 이외의 農業所得源과 農外所得이 相對的으로 많은 大卒應答者の 耕地面積 最頻值는 0.5ha 미만으로 標本全體最頻值에 미달하고 있다 (表 9).

#### 3) 學歷과 農家所得

國卒應答者 중 年間 130萬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比率은 24.2%였다. 學歷에 比例해서所得도 높아져서 中卒은 43.9%가 130萬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고 高卒은 國卒의 2倍가 넘는 56.7%가, 그리고 大卒은 71.4%가 130萬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表 10).

#### 4) 學歷과 主所得源

學歷이 낮을수록 穀類에 對한 의존도가 높았다. 國卒은 63.5%가, 中卒의 59.7% 그리고 高卒의 54.2%, 大卒의 51.4%가 食糧作物에서 主

表 9 勞力別耕地面積

( )안은 %

	경종의	0.5ha이하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이상	계
국 졸	3 (2.7)	23 (21.1)	48 (44.0)	21 (19.3)	9 (8.3)	4 (3.7)	1 (0.9)	109 (100.0)
중 졸	1 (0.4)	47 (19.9)	95 (40.3)	59 (25.0)	24 (10.2)	5 (2.1)	5 (2.1)	236 (100.0)
고 졸	2 (1.0)	32 (16.0)	77 (38.5)	52 (26.0)	18 (9.0)	15 (7.5)	4 (2.0)	200 (100.0)
대 졸	1 (3.0)	9 (27.3)	5 (15.2)	7 (21.2)	4 (12.1)	3 (9.1)	4 (12.1)	33 (100.0)
계	7 (1.2)	111 (19.2)	225 (38.9)	139 (24.1)	55 (9.5)	27 (4.7)	14 (2.4)	578 (100.0)

表 10 勞力別所得額 ( )안은 %

	70만원 이하	70~130	130~190	190만원 이상	계
국 졸	29 (26.9)	42 (38.9)	20 (18.5)	17 (15.7)	108 (100.0)
중 졸	47 (19.8)	86 (36.3)	62 (26.2)	42 (17.7)	237 (100.0)
고 졸	21 (10.5)	66 (32.8)	66 (32.8)	48 (23.9)	201 (100.0)
대 졸	2 (5.7)	8 (22.9)	11 (31.4)	14 (40.0)	35 (100.0)
계	99 (17.0)	202 (34.8)	159 (27.4)	121 (20.8)	581 (100.0)

로收入을 얻고 있었다.

果樹의 경우에는 高卒이상의 學歷層의 構成比가 높아서 高卒의 6.0%, 大卒은 果樹全體 平均인 5%의 3.5배에 달하는 17.2%였으나 國卒中에는 3.7%, 中卒중에서는 2.9%만이 果樹를 主所得源으로 하고 있어 學歷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菜蔬와 特用作物은 高卒이하가 應答者 平均值인 16% 내외의 構成比를 나타내고 있으나 大卒만은 11.4%로 비교적 낮은 構成比를 보이고 있다.

畜產은 學歷과 逆比例해서 國卒이 가장 많은 14.7%의 構成比를 보였고 中卒도 비슷한 水準인 13.5%였으나 高卒은 9.0%, 大卒은 가장 낮은 5.7%였다.

養蠶은 畜產과 반대로 高學歷層의 構成比가 높았으나 전체 표본수가 적어 정확한 경향을 나타내었는지는 의문이다.

農外所得이 主所得源인 경우도 全體의 8.0%나 있었는데 國卒層의 구성비율은 매우 낮은 2.7

表 11 勞力別 主所得源 ( )안은 %

	곡류	과수	채소	특작	축산	양잠	농외소득	계
국 졸	69 (63.3)	4 (3.7)	16 (14.7)	16 (14.7)	1 (0.9)	3 (2.7)	109 (100.0)	
중 졸	142 (59.7)	7 (2.9)	37 (15.5)	32 (13.5)	1 (0.4)	19 (8.0)	238 (100.0)	
고 졸	109 (54.2)	12 (6.0)	38 (18.9)	18 (9.0)	3 (1.5)	21 (10.4)	201 (100.0)	
대 졸	18 (51.4)	6 (17.2)	4 (11.4)	2 (5.7)	1 (2.9)	4 (11.4)	35 (100.0)	
계	338 (58.0)	29 (5.0)	95 (16.3)	68 (11.7)	6 (1.0)	47 (8.0)	583 (100.0)	

表 12 勞力別 農外所得額 ( )안은 %

	없다	20만원 이하	20~50	50~100	100~150	150만원 이상	계
국 졸	31 (28.7)	36 (33.3)	26 (24.1)	11 (10.2)	3 (2.8)	1 (0.9)	108 (100.0)
중 졸	47 (20.4)	76 (33.0)	68 (29.6)	29 (12.6)	8 (3.5)	2 (0.9)	230 (100.0)
고 졸	42 (21.2)	47 (23.8)	57 (28.8)	40 (20.2)	8 (4.0)	4 (2.0)	198 (100.0)
대 졸	7 (20.6)	6 (17.6)	7 (20.6)	10 (29.4)	2 (5.9)	2 (5.9)	34 (100.0)
계	27 (22.3)	165 (28.9)	158 (27.7)	90 (15.8)	21 (3.7)	9 (1.6)	570 (100.0)

%였고 中卒은 8.0%, 高卒이 10.4%, 大卒 11.4%로 學歷에 따라 약간 比率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表 11)。

### 5) 學歷과 農外所得

國卒層은 33.3%가 最頻值인 20萬원 이하였고 전혀 없는 비율이 28.7%였으며 中卒은 33.0%가 20萬원이하, 그 다음은 29.6%를 차지하는 20萬원~50萬원이었다.

高卒의 農外所得 最頻值는 20萬원~50萬원 으로 28.8%, 20萬원 이하가 23.8%였으며 大卒에서는 50萬원~150萬원의 層이 2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萬원~50萬원의 20.6%였다(表12)。

이와 같이 農外所得은 學歷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學歷間 隔差도 매우 크다.

50萬원 이상 農外所得의 學歷別 構成比는 國卒에서 13.9%, 中卒의 17%, 高卒은 26.2%, 大卒에서는 41.2%를 차지하고 있어 學歷에 따라 幾何級數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어 就勞所得中心의 農外所得概念과는 전혀 다른 反應을 보였다.

#### 다. 居住地帶와의 關係

##### 1) 居住地와 家族數

山間地帶 家族數의 最頻值은 5~6人으로 山間地應答者の 40.1%에 該當했으며 中間地帶 역시 비슷한 構成比를 보여 5~6人 家族의 42.3%였다. 그러나 平均地帶는 7~8人家族의 最頻值로서 44.3%였다. 즉 平野의 가족수가 가장 많고 산간지대와 중간지대는 서로 비슷하나 중간지대

##### 2) 居住地와 耕地面積

1.5ha 이상의 경지면적을 소유한 應答者の 居住地別 構成比는 山間地帶가 14.3%, 中間地帶가 14.8를 차지했고 平野地帶에서는 훨씬 많은 39.1%에 달했다(表 14)。

##### 3) 居住地와 所得

居住地別 所得額은 前項 거주지별 경지면적과 매우 類似한 構成比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190萬원 以上 所得의 構成比는 山間地帶의

表 13 居住地別家族數 ( )안은 %

	1~2	3~4	5~6	7~8	9인 이상	계
산간지	1 (0.6)	16 (9.9)	65 (40.1)	58 (35.8)	22 (13.6)	162 (100.0)
중간지	2 (0.6)	31 (10.0)	131 (42.3)	108 (34.8)	38 (12.3)	310 (10.00)
평야지	—	8 (9.1)	30 (34.1)	39 (44.3)	11 (12.5)	88 (100.0)
기타(근교)	—	4 (16.0)	15 (60.0)	5 (20.0)	1 (4.0)	25 (100.0)
계	3 (0.5)	59 (10.1)	241 (41.2)	210 (35.9)	72 (12.3)	585 (100.0)

表 14 居住地別耕地面積

( )안은 %

	경종의	0.5ha이하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이상	계
산간	3 (1.9)	25 (15.5)	71 (44.1)	39 (24.2)	15 (9.3)	6 (3.7)	2 (1.3)	161 (100.0)
중간	3 (1.0)	66 (21.3)	114 (36.8)	81 (26.1)	26 (8.4)	14 (4.5)	6 (1.9)	310 (100.0)
평야	—	14 (16.3)	31 (36.0)	16 (18.6)	13 (15.1)	6 (7.0)	6 (7.0)	86 (100.0)
기타(근교)	1 (4.4)	6 (26.0)	11 (47.8)	3 (13.0)	1 (4.4)	1 (4.4)	—	23 (100.0)
계	7 (1.2)	111 (19.1)	227 (39.1)	139 (24.0)	55 (9.5)	27 (4.7)	14 (2.4)	580 (100.0)

表 15 居住地別所得額 ( )안은 %

	70만원이하	70~130	130~190	190만원이상	계
산간	31 (19.1)	67 (41.4)	41 (25.3)	23 (14.2)	162 (100.0)
중간	54 (17.5)	107 (34.7)	88 (28.6)	59 (19.2)	308 (100.0)
평야	11 (12.5)	19 (21.6)	25 (28.4)	33 (37.5)	88 (100.0)
기타(근교)	4 (16.0)	10 (40.0)	5 (20.0)	6 (24.0)	25 (100.0)
계	100 (17.2)	203 (34.8)	159 (27.3)	121 (20.7)	583 (100.0)

의 家口員數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13)。

14.2%, 中間地帶는 그보다 약간 많은 19.2%, 平野地帶는 平野以外 지역의 2배가 넘는 37.5%에서 居住地에 따라 매우 심한 所得隔差가 있음을 들어 내었다(表 15)。

##### 4) 居住地와 主所得源

穀類를 主所得源으로 하는 農家는 平野지대에 단연 많아 平野應答者の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山間 59.3%, 中間 58.0%의 順이었다.

果樹는 平野와 山間이 비슷한 比率로 각각 6.8%와 6.2%의 構成比를 보였으나 中間地帶는 의

表 16 居住地別 主所得源 ( ) 안은 %

	곡류	과수	채소	특작	축산	양 잡	농외 소득	계
산 간	96 (59.3)	10 (6.2)	24 (14.8)	—	25 (15.4)	—	7 (4.3)	162 (100)
중 간	180 (58.0)	12 (3.9)	56 (18.1)	—	35 (11.3)	5 (1.6)	22 (7.1)	310 (100)
평 야	56 (63.6)	6 (6.8)	9 (10.2)	—	7 (8.0)	1 (1.2)	9 (10.2)	88 (100)
기 타 (군교)	7 (28.0)	1 (4.0)	7 (28.0)	—	1 (4.0)	—	9 (36.0)	25 (100)
계	339 (58.0)	29 (5.0)	96 (16.4)	—	68 (11.6)	6 (1.0)	47 (8.0)	585 (100)

로 生活에 큰 보탬이 되는 額數인 50萬원 이상의 構成比를 보면 山間 12.8%, 中間 22.9%, 平野 23.9%, 近郊가 39.2%를 占하고 있어 農外所得에서도 地帶間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表 17)。

#### 라. 家族數와의 關係

##### 1) 家族數와 耕地面積

가족수와 경지면적은 대체로 正比例하여 가구

表 17 居住地別 農外所得額

( ) 안은 %

	없 다	20만원이하	2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이상	계
산 간	36 (22.9)	63 (40.1)	38 (24.2)	16 (10.2)	2 (1.3)	2 (1.3)	157 (100.0)
중 간	61 (20.2)	80 (26.5)	92 (30.4)	57 (18.9)	7 (2.3)	5 (1.7)	302 (100.0)
평 야	30 (34.1)	15 (17.0)	22 (25.0)	13 (14.8)	6 (6.8)	2 (2.3)	88 (100.0)
기타(군교)	—	7 (30.4)	7 (30.4)	3 (13.1)	6 (26.1)	—	23 (100.0)
계	127 (22.3)	165 (28.9)	159 (27.9)	89 (15.6)	21 (3.7)	9 (1.6)	570 (100.0)

表 18 家族數別 農地面積

( ) 은 %

	경 종외	0.5ha미 단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ha이상	계
4인 이하	1 (1.6)	18 (29.0)	29 (46.9)	8 (12.9)	2 (3.2)	1 (1.6)	3 (4.8)	62 (100.0)
5~6인	4 (1.7)	59 (24.8)	104 (43.7)	53 (22.3)	12 (5.0)	5 (2.1)	1 (0.4)	238 (100.0)
7~8인	2 (1.0)	28 (13.4)	81 (38.8)	51 (24.4)	30 (14.3)	10 (4.8)	7 (3.3)	209 (100.0)
9인 이상	—	6 (8.5)	13 (18.3)	27 (38.0)	11 (15.5)	11 (15.5)	3 (4.2)	71 (100.0)
계	7 (1.2)	111 (19.1)	227 (39.1)	139 (24.0)	55 (9.5)	27 (4.7)	14 (2.4)	580 (100.0)

외로 낮은 3.9%였다.

菜蔬·特作은 中間 18.1%→山間 14.8%→平野 10.2%의 順이었으며 畜產은 山間 15.4%→中間 11.3%→平野 8.0%의 順의 比重을 보였다.

近郊를 주로 한 기타지역은 穀類와 菜蔬·特作이 같은 28.0%로 農業소득중 가장 높았으며 農외소득이 더 많은 36.0%를 차지 하고 있었다(表 16)。

##### 5) 居住地와 農外所得

농외소득이 전혀 없이 農業所得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山間이 22.9%, 中間 20.2%보다 平野가 많아 平野의 最頻值인 34.1%였다. 그러나 실제

원수가 많으면 경지면적도 넓었다.

1ha~1.5ha 規模의 경우 4人이하의 12.9%, 5~6人的 22.3%, 7~8人的 24.4%, 그리고 9人 이상의 38%가 이에 해당했으며 1ha 이상 應答者構成比는 4人이하의 22.5%, 5~6人的 29.8%, 7~8人的 46.8%, 9人이상의 73.2%였다(表 18)。

家族數와 所得과의 관계 역시 耕地面積과 매우 흡사해서 130萬원 以上의 構成比는 4人 이하의 19.0%, 5~6人的 43.6%, 7~8人的 53.8%, 9人이상의 82.5%였다.

##### 2) 家族數와 主所得源

9人 이상의 대가족은 穀類와 果樹의 比重이

表 19 家族數別主所得源 ( ) 안은 %

	곡류	과수	채소특작	축산	양잠	농외소득	계
4인 이하	36 (58.1)	2 (3.2)	11 (17.7)	7 (11.3)	—	6 (9.7)	62 (100)
5~6인	128 (53.1)	12 (5.0)	41 (17.0)	32 (13.3)	2 (0.8)	26 (1.08)	241 (100)
7~8인	127 (60.5)	9 (4.3)	36 (17.1)	22 (10.5)	2 (0.9)	14 (6.7)	210 (100)
9인 이상	48 (66.7)	6 (8.3)	8 (11.1)	7 (9.7)	2 (2.8)	1 (1.4)	72 (100)
계	339 (58.0)	29 (5.0)	96 (16.4)	68 (11.6)	6 (1.0)	47 (8.0)	585 (100)

것고 菜蔬·特作이나 畜產 및 농외 소득의 比率은 낮았다.

그외의 家口員階層間에는 作目과 관계없이 平準화되어 있어 家族數와 主所得源間에는 特別한 函數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表 19)。

### 3) 家族數와 農外所得

年間 50萬원 이상의 농외소득을 얻는 경우를 家族數別로 보면 4人이하의 12.5%, 5~6人의 20.3%, 7~8인의 21.6%, 9人이상의 26.9%가 이에 해당되어 家口員數와 農外所得이 比例함을 말해 준다.

### 마·耕地面積과의 關係

#### 1) 耕地面積과 所得

경지 면적과 所得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 면적이 넓을수록 소득도 많아진다.

年間 190萬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계층을 面積別로 보면 0.5ha 계층의 5.2%, 0.5~1.0ha 層의 15.0%, 1.0ha~1.5ha의 18.0%, 1.5ha~2.0ha의 41.8% 그리고 1.0ha 이상 階層의 76.6%가 이에 該當한다(表 20)。

#### 2) 耕地面積과 主所得源

穀類는 1.0~1.5ha 階層을 頂點으로 이보다 면적이 넓거나 좁으면 主所得依存率은 낮아졌다.

菜蔬·特作은 이 階層을 中心으로 耕地面積이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構成比도 높아지나 면

表 20 耕地面積別所得額 ( ) 안은 %

	70만원 이하	70~130만원	130~190만원	190만원 이상	계
0.5ha 미만	51 (43.6)	52 (44.4)	8 (6.8)	6 (5.2)	117 (100.0)
0.5~1.0ha	37 (16.4)	93 (41.2)	62 (27.4)	34 (15.0)	226 (100.0)
1.0~1.5ha	7 (5.0)	46 (33.1)	61 (43.9)	25 (18.0)	139 (100.0)
1.5~2.0ha	2 (3.6)	10 (18.2)	20 (36.4)	23 (41.8)	55 (100.0)
2.0ha 이상	2 (4.9)	1 (2.4)	7 (17.1)	31 (75.6)	41 (100.0)
계	99 (17.1)	202 (35.0)	158 (27.3)	119 (20.6)	578 (100.0)

적이 넓은 평의 主所得依存度가 높았다.

畜產은 2.0ha 이상을 제외하고는 面積이 좁을수록 構成比가 커져서 小農일수록 主所得 依存度가 높았으며, 果樹는 1.5ha 이상 계층에 集中되어 있었다(圖 1)。

農外所得은 耕地面積이 적을수록 構成比가 높아 0.5ha 미만의 16.9%, 0.5~1.0ha 7.9%,

圖 1 耕地面積別所得依存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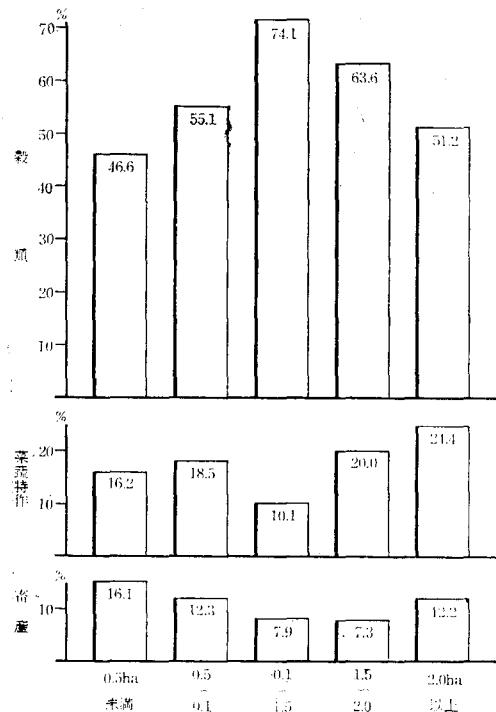


表 21 農地面積別主所得源

( ) 안은 %

	곡 류	파 수	채소특작	축 산	양 잡	농외 소득	계
0.5ha 미만	55 (46.6)	3 (2.5)	19 (16.2)	19 (16.1)	2 (1.7)	20 (16.9)	118 (100.0)
0.5~1.0ha	125 (55.1)	12 (5.3)	42 (18.5)	28 (12.3)	2 (0.9)	18 (7.9)	227 (100.0)
1.0~1.5ha	103 (74.1)	5 (3.6)	14 (10.1)	11 (7.9)	1 (0.7)	5 (3.6)	139 (100.0)
1.5~2.0ha	35 (63.6)	4 (7.3)	11 (20.0)	4 (7.3)	—	1 (1.8)	55 (100.0)
2.0ha 이상	21 (51.2)	5 (12.2)	10 (24.4)	5 (12.2)	—	—	41 (100.0)
계	339 (58.4)	29 (5.0)	96 (16.5)	67 (11.6)	5 (0.9)	44 (7.6)	580 (100.0)

表 22 農地面積別農外所得額

( ) 안은 %

	없 다	20만원미만	2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이상	계
0.5ha 미만	18 (15.5)	38 (32.8)	34 (29.2)	22 (19.0)	3 (2.6)	1 (0.9)	116 (100.0)
0.5~1.0ha	50 (22.2)	65 (28.9)	63 (28.1)	34 (15.1)	10 (4.4)	3 (1.3)	225 (100.0)
1.0~1.5ha	31 (24.0)	38 (29.5)	37 (28.6)	17 (13.2)	4 (3.1)	2 (1.6)	129 (100.0)
1.5~2.0ha	18 (32.7)	16 (29.1)	11 (20.1)	7 (12.7)	1 (1.8)	2 (3.6)	55 (100.0)
2.0ha 이상	9 (22.5)	7 (17.5)	13 (32.5)	9 (22.5)	2 (5.0)	— (0.0)	40 (100.0)
계	126 (22.3)	164 (29.0)	158 (28.0)	89 (15.8)	20 (3.5)	8 (1.4)	565 (100.0)

1.0ha~1.5ha의 3.6%, 1.5~2.0ha의 1.8%가  
農外所得이 있었고 2.0ha 이상은 농외소득이 전  
혀 없었다.

### 3) 耕地面積과 農外所得

50萬원 以上 農外所得의 階層別構成比는 0.5  
ha 미만의 22.5%, 0.5~1.0ha의 20.8%, 1.0  
~1.5ha의 17.8%, 1.5~2.0ha의 18.1%, 2.0  
ha의 27.5%였다.

다만 農外所得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만 耕地  
面積의 크기와 階層別構成比가 逆比例하고 있엇  
다(表 22).

여기서 농외소득과 學歷과의 관계(表12)를 감  
안하면 耕地規模의 零細性이 農外所得機會를 創  
出하는 것이 아니라 農外所得이 耕地規模를 零  
細化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